

## 치 사

인류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 전법의 길로 나서는 것은 벅찬 일이면서도 감동의 헌신입니다. 오늘 전법과 포교에 남다른 공을 세운 분들을 모시고 그 공덕을 축하하고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모두의 즐거움은 배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법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분들이 탁마하고 고민하며 실천하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포교의 길로 가는 이러한 분들이 있기에 종단은 물론 한국불교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깊음 속에 올해 포교대상 수상자들은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포교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포교는 인내와 자비라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성취하고 오직 법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험난한 여정에 나서고, 외면하던 다섯 사문에게 진정한 행복과 안락을 깨우쳐 주기까지는 인내와 자비가 중요한 실천정신이었습니다. 전법의 현장에는 이러한 비원과 각오가 서 있어야 할 것이며, 오늘 수상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인내와 자비의 전법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포교대상을 수상하는 성일스님은 비구니 스님으로는 두 번째로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일스님은 한국불교의 앞날을 환히 밝히기 위해 일찍이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오신 새싹 포교의 선구적인 화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군 포교, 대학생 포교, 재소자 포교에도 공헌하여 그들에게 꿈과 희망은 물론 안전하고 아늑한 정신의 공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공로상을 수상하는 혜원스님, 적운스님, 장명스님, 그리고 이윤희 불자님은 각각 문화체육포교, 계층 및 매체포교, 문화 및 지역포교에 기여하신 분들입니다.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공적으로 많은 포교영역을 구축하신 불퇴전의 보살들입니다. 공로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축하를 드립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포교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열 한분의 동량지재(棟梁之材)를 원력상으로 모셨습니다. 원력과 신심으로 현장의 실천에 진력해 오신 분들입니다. 원력상은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힘찬 공덕의 격려를 드립니다.

포교의 길은 불자라면 누구나 들어서야 할 가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비록 멀리 휘어져 있을 지라도 때론 비탈지고 험할 지라도, 밝은 희망과 행복의 트랙으로 인도하는 길이기예, 그래서 나 또한 행복해지는 길이기예 마음은 설레고 기쁘며 더불어 진정으로 환희로운 여정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포교대상을 비롯한 공로상과 원력상을 수상하는 여러분들을 축하하며, 오늘 이 기쁨을 여러 사부대중과 함께 나누게 되어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6년 11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